

갤러리는 작업실, 작업실은 바, 바는 갤러리...

이색 전시 <스마일 플래닛>의 주인공들을 만나다

카페인가, 작업실인가, 갤러리인가? 세 가지 이름 중 어느 하나를 갖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공간이다. 지난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라는 긴 여정 아래 전시 중인 윤정원의 <스마일 플래닛>(Smile Planet). 인사동 '갤러리상157'의 6층에서는 오늘도 작가 윤정원이 푹푹푹 작업하고 있고, 그 옆의 바(bar)에서는 관람객들이 와인이나 커피를 즐기고 있을지 모른다. 작가와 작품과 관객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스마일 플래닛>은 '갤러리상157'의 관장과 작가, 설치조각가, 큐레이터, 그리고 관객이 함께 만드는 실험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긴 여정의 반을 넘어서려 하는 <스마일 플래닛>의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예술>이 찾아가 들여다보았다.

글 박영택 미술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박정훈, 박정희

미술관의 역사가 깊고 아득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전시공간은 여전히 생소하고 낯설며 어렵기까지 하다. 아니, 미술이 어렵다고 여기기에 그 전시장 문턱을 넘어서기 또한 더없이 힘들다고들 한다. 그러나 무조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전시가 좋은 전시이며 그렇게 만든 전시공간이 반드시 의미 있는 곳이냐고 한다면,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딜레마가 놓여 있다. 아마도 미술관이나 화랑에 근무하는 이들의 본질적인 고민이 여기에 놓여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미술'을 친근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전시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원천적으로 전시공간이 영화관이나 콘서트장, 혹은 야구경기장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미술이 일상이 되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미지를 통해 세상과 사물을 보고 느끼는 힘을 키우고 감각의 날을 세우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 진하게 묻어나는 전시장 체험과 방문은 가능하지 않을까? 식당과 카페를 찾아가듯, 하루치 신문을 읽지 않으면 허전하듯, 전시장을 다니지 않으면 이내 감성과 인식의 날이 무뎠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활화된 전시장 체험은 어려울까?

생활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

<스마일 플래닛> 전시가 열리는 '갤러리상157' 6층의 전시장은 이전까지 해왔던 갤러리 운영을 근원적으로 탈피한 공간이다. 이곳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말발굽 모양의 바(bar)가 눈에 띈다. 모던한 카페에 온 듯한 첫 느낌은 사방에 놓여 있는 (또는 걸려 있는) 전시작품들에 이내 호기심으로 바뀐다. 한쪽 구석에서는 트레이닝복을 입은 한 여인이 작은 소품들을 쌓아두고 무언가를 만든다. 바로 <스마일 플래닛>의 작가 윤정원이다. 이곳에서는 작업실이 개방되어 있는데 작가는 1년 동안 이 안에서 마음껏 작업하며 자신의 작품을 생산, 전시, 판매한다. 윤정원은 자신의 작업을 이용해 인테리어를 하고, 곳곳에 작품을 설치해 전시와 상품의 구분 없이 공존하는 풍경을 만든다. 또한 공간 한가운데에 위치한 바와 창가의 테이블은 관람객들이 와서 보고 마시고 놓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작가의 제작 행위를 은밀히 엿볼 수도 있고 말을 건네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형편만 된다면 작품도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다. 마치 작업실과 전시장과 상품매장, 카페가 하나로 맞물린 듯한 공간이다. 그동안 예가 없던 일이다.

<스마일 플래닛>은 '갤러리상157'의 관장과 작가, 설치조각가, 큐레이터의 아이디어와 협력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대관, 혹은 특정 작가의 개인전이나 기획전을 유치해 관객들을 기다리는 일반적인 전시장 문화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이 선택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은 ‘예술가, 갤러리, 관람객이라는 삼각형을 이루는 꼭짓점의 적절하고 조화로운 균형’이었다. 아울러 ‘현실적인 예술문화활동’이어야 한다는 점도 개입되었다. 예술가와 갤러리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하며 재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새롭고 실험적인 공간에서 작가와 관장, 큐레이터, 설치조각가, 그리고 단골 관람객이라는 김정훈 씨를 만나 <스마일 플래닛>의 새로운 시도와 의미, 가능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실 이들은 모두 <스마일 플래닛>의 주인공이자 구성요소인 셈이다.

“관객의 궁금증 해소해주는 곳이지요” —작가 윤정원



“1년 동안 매일 나와 작업한다는 게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는데 지금은 아주 편해졌어요. 사실 작가들이 워낙 조용하게 작업해서 저도 이게 가능할까 했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혼자 하는 작업들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웃음) ‘갤러리상157’에서 이렇게 일 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고 여러 가지를 후원해 주시는데, 이런 파격적인 경우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아요. 작가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해질 수 있는데 확실히 책임감도 생기고요. 그런데 그게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참 재미있어요.

사실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다보면 사람들도 잘 만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전시를 해도 작업에 대해 서로 얘기도 잘 안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다보면 뭐랄까 더 편하게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관람하러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냥 카페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돼요. 나이 드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50대 60대 분들이 오셔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판타지를 떠오르게 하는 밝은 색상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작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자유로운 공간과 분위기가 좋으신 거죠. 그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가시면 참 좋지요. 또 관람객들은 제가 여기서 작업하는 걸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흥미로워하시더라고요. 기존 전시공간에는 작품만 있지 작가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관람객들은 ‘도대체 작가가 누구일까?’ 하는 걸 궁금해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공간은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곳이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오브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소품을 조합하거나 연결해서 색

다르게 만들어나가는 거죠. 이것저것 붙인 옷도 만들어서 제가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옷 중에는 알록달록하고 입체로 되어 있는 상당히 독특한 것들도 있어서, 가끔 사 가시는 분들 보면 저도 깜짝 놀라는데... (웃음) 그런 점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만들 생각이에요. 재료를 구할 때도 여기저기 다 다녀요. 문방구부터 해외까지요. 그렇게 몇 년을 계속 모아왔던 물건들을 이제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거죠. 여기에 머무는 일 년 동안은 작품 배치도 계속 바꾸고 새로운 걸 만들어 걸기도 할 거예요. 말하자면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거죠. 그냥 내 집을 꾸미고, 지루하면 막 바꾸는 것처럼요. 파티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예요.

제가 이 프로젝트의 첫 주자인 셈인데, 사실 부담도 좀 있어요. 다음 작가가 오게 하려면 제가 잘 해야죠. 1년이라는 기간도 만만치 않고요. 그냥 작업실하고는 다른 거니까. 제가 잘 해야만 다음 작가가 와서도 여기에 쌓아온 노하우들을 잘 이용해서 할 수 있겠지요.”

“바, 열린 작업실, 아트숍을 한눈에” —설치조각가 유영호



“작가와 갤러리와 관람객, 즉 생산과 유통, 소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세 가닥 주체의 함수관계에서 생겨나는 접점과 경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첫번째로 작가와 갤러리와의 관계 설정, 즉 전시라는 과정과 작품의 판매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서의 관계와는 다른 대안적 관계에 대한 가능성과, 갤러리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식들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토대로 관람객, 혹은 수용자의 입장과 문화적 취향의 교환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현실화하는 방법을 모색한 거죠. 그리고 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 가닥의 주체가 각자의 포지션을 정립했고 또 이에 반응하고... 그런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수동적 수요자로서의 갤러리, 이를 가능케 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바, 작가와 관객이 직접 교류하고 작업의 일부에 참여할 수도 있는 작가의 열린 작업실, 작품이 현실적인 가격으로 직거래되는 숍(shop), 이런 요소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각자의 영역을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작가와 미술의 새로운 활용방식에 대한 하나의 제안이기도 하겠지요.”



“〈스마일 플래닛〉의 의미는 지속성” — 큐레이터 신혜영



“저는 갤러리와 작가가 서로 조율하고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간 컨셉도 관장님과 작가 자신이 가진 컨셉들이 조화를 이룬 거죠. 기존 전시랑은 많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 그룹전 전시계획을 할 때에는 제가 감독이 돼서 전시를 만든 거라면, 이번에는 작가에게 감독 역할을 준 거죠. 관장님도 전체적인 제작자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작가의 색깔이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거예요.

이 공간에 어울리고, 또 여기에서 요구하는 작가들은 기존의 전시장이 선호하는 작가들과는 좀 달라요. 1년 동안 한 작가에게 공간을 주고 지속적으로 전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면 작가가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작가 입장에서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은 작가들이 원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소화해낼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실 분위기가 산만하잖아요.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전체 중 한쪽을 쓰니까.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서 판매되는 작품의 가격이 기존의 갤러리에 비하면 아주 유동적이라, 페인팅만 하시거나 작품의 형식이 고정화되어 있는 분들은 소화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이랑 연결되어서, 작품이 상품처럼 유통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탄력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좋겠죠. 작품 가격과 유통, 거래 같은 것들에 대해 작가가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의 고정된 시각으로 그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시면 같이 가기가 힘들 거예요.

윤정원 작가랑은 그런 것들에 대해 충분한 대화가 됐고, 관장님이나 설치조각가와 다 같이 공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각자의 머릿속에만 이미지가 있어서 아주 막연했는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점점 구체화된 거죠. 정통적인 갤러리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너무 상업적이지는 않은 공간을 만들기로 하고 참여하면서 느낀 점도 많아요. 작가들이 원하는 무대나 실내 디자인이 있는데, 그 의견이 참신해도 실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 디테일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나 설계하는 분이 호응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풀려나가더라고요. 디자인하거나 설계하는 분들은 공간을 해석하는 시점 자체가 작가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공간에 대한 예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작가와 디자이너가 같이 작업한다면 더 풍부한 일들이 막 벌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 〈스마일 플래닛〉의 중요한 의미는 지속성인 것 같아요. 지금 추이로는 그 지

속성에 대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희 관장님이시잖아요. 이 정도라면 계속 할 수 있는 가치도 있고 부담이 아주 클 것 같지 않아요. 지속된다면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작가가 가진 창의적인 발상을 돈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품으로 표현하고, 그 작품은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이런 공간에서 전시되거나 팔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술가와 갤러리와 관객의 연결고리가 이어진다면 의미가 있을 거예요.”

“문화적 마인드와 상업적인 전시공간의 만남” — 관장 이승형



“지난 10년 동안 ‘갤러리상’을 운영하면서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털어 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조금은 상업적으로 가는데, 진짜 문화적 마인드를 갖고 그 상업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고민이 이런 식으로 연출된 거죠. 의도적으로 공간 안에 작품과 작가와 문화시설을 밀어 넣어 복합적인 쇼피몰이자 전시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예술이라는, 문화라는 것을 넣어서 까 별려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30, 40대 허리 중심의 작가들 중 함께 일하고 싶은 작가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하게 하는 거죠. 서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제가 만들고 연구하기로 하고요. 전 작가의 작업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윤정원 작가가 작업하는 공간, 저 15평 정도는 온전히 작가만의 공간이죠.

이런 것들은 과거의 ‘갤러리상’이 갖고 있던 공간의 선호도와는 다른 차원이예요. ‘갤러리상’의 주요 관객층과도 굉장히 단절되어 있어요. 그 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이 질감을 느끼는 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술하고 관련 없는 다수의 대상들을 방문시키고 참여시키고 얘기했을 때는 의외로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감각적인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그냥 와서 느끼고 즐기는 문화로 인식하는 거고, 외국인들은 예외 없이 들어와요. 옷 입어보고 앉아서 차 마시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 많이 하고, 작가와 얘기도 하고. 경제력 있는 40대 여성 관객들은 와서 감상하다가 옷 같은 건 입어보고 사 가기도 해요. 제작 의뢰를 하면 작가가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렇게 저 작가분이 성장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작업실에 대해 계속 서로 피드백을 주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공유하고 관람객들도 많이 오면 좋겠죠.



아직 몇 달 안 됐지만 상당히 재미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돈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러 분들이 와서 술도 드시고 커피도 마시도 작품도 사시고... 그러니까 아직 이윤을 추구할 정도는 아니지만, 운영경비 정도는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로서는 엄청난 성공이죠. 또 한 가지는,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여러 작가를 여기 참여시키면서 수익이 확장되면 같이 했던 작가들끼리 유학비용을 지원하는 게 어떨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취지도 있어요.”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관객 김정훈



“보통 갤러리라고 하면요, 막 못 들어가잖아요. 좀 배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편견이 있죠. 작품 하나에도 다가서기 힘든데 작품들이 잔뜩 있는 갤러리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히 전 미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웃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전 이런 공간에 호기심 느끼고 궁금하게 보거든요. 다른 전시장은 엄두도 못 내고 밖에서만 오며 가며 걸린 것만 보는데, 확실히 <스마일 플래닛>에는 발 들여놓기가 쉬워요.

여기 들어와서 느낌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단 좀 신기했어요. 궁금증을 유발하고, 호기심이 자꾸 생기고요.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참여한다는 거였어요. ‘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만져보게 되고요. 기존의 전시장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시장과 가깝구나. 작가와 가까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작가’라고 하면 마주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작업도 하고, 직접 보는 게 아주 흥미롭죠. 작가가 옷도 만들어 놓는데, 그걸 입어보기도 하고, 재미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워낙 자주 오니까 선물도 주셨어요. (웃음) 벡타이도 만들어주시고, 실제로 그 벡타이 착용하고 일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작가하고도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워낙 편안하게 해놓은 공간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작품에 대한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 오며 가며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웃음) 작가와 부담 없이 대화하고 코앞에서 작업을 지켜보고,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작품들을 손으로 만져보고... 이런 편안함과 자유로움이 이 공간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소통’과 ‘즐거움’이 있는 이 실험적인 공간이 성공(?)하려면, 아니 지속되어 어떤 성과를 내려면, 적지 않은 투자와 인내가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이 실험과 모색은 분명 의미 있고 창조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새로운 모델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들은 벌써 저만큼 나아가고 있다. 사실 그 점이 중요한 것이다.

글쓴이 박영택 성균관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금호미술관에서 10여 년 동안 큐레이터로 일했고, 현재 경기대학교 미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술가로 산다는 것>, <식물성의 사유>, <나는 붓을 던져도 그림이 된다>, <민병현>, <미술전시장 가는 날> 등의 저서가 있다.

